

새신자와 헌신자 (1)

4월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서로 모습을 비추어 보며 헌신자는 새신자를 통해
초사망을 상기하며 새신자는 헌신자를 통해
좋은 집집이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월 글

충현에서 6년

박 선 우(73동기)

우 리 교회에 발을 디딘지 만 6년이 되었습니다. 제 학업에 비추어 본다면 대학 4년과 대학원 2년 과정에 대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을 저는 충현의 대학부와 청년 1부에서 지냈습니다. 한창 젊은 시절이었으니, 그리 짧은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앞장서서 이끌고 나아갔던 일과는 아니었지만, 충현에서의 6년은 저에게 많은 고

민과 도전, 갈등, 깨달음, 감사와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이긴한, 밀적감지 떨어져서 그냥 구경만 하던 시절도 있었고, 막상 앞에 나아가서는 힘겨워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저는, 믿음을 얻게 된 후에 다시 생각해 보더라도 공동체 원리에 딱히 부합되는 성격의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교제법위가 좁고, 웬만한 것은 먼저 나서서 자신의 생각과 습관을 솔직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사람이 연고 없는 교회에 적응하고 뿌리내리는 것은 사실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비밀은 많고, 학업에 연연해 했습니다. 학생이 학업에 힘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학업은 교회의 일이 버거울 때마다 저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공동체에서 골치아픈 문제가 많을수록 저는 학업에 열중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치 요나의 박넙치처럼 학업은 저에게 한시적인 위로를 가져다 줄 뿐이었습니다. 아직도 공부를 계속하고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요나의 박넙치를 번성케도 사들게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제 학업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에 대한 저의 편견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만 요인만은, 항상 곁에서 저에게 관심을 가져 주었던, 그

리고 제가 절에서 보고 배울 수 있었던 지체들입니다. 물론 제가 몸담았던 대학부와 청년 1부의 교역자님들과 신생님들께도 감사드리지만요. 함께 머리를 모으고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선, 후에 동기들이아말로 제 영적 병명과 증상을 가장 잘 알고 치료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셨듯이, 주변 지체들은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중에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못하지만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이의 삶을 통해 열린 마음의 소중함과 내적 자유의 은혜도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의 열매로 맺어 가는 것이 남긴 과제라고 봅니다.

지난 6년은 저 자신으로서는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들이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찾았던 기도원, 찬양과 기도로는 은혜가 충분했던 수양회, 신배들과의 성경공부, 캠퍼스와 터미널에서의 노방전도. 이 모든 것들을 저 혼자 존자로서는 경험하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항상 정열을 주고, 격려와 사랑을 아끼지 않았던 공동체의 지체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난 6년 동안 제 삶의 궤적에 절제 배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잊지 못할 시간과 공간들이니까.

다가오는 부활절을 저는 군에서 맞

이할 것입니다.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충현에서 6년이 저의 늦깎이 군생활에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워낙 청한에 인색한 사람이라, 지체들에게 그때 그때 고마웠던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아쉽군요. 우선 6년 동안 함께 하였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약한 마음과 의지를 연단시켜 주신 교역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절에서 지켜보고 보살펴 주었던 공동체의 지체 여러분들께는 정말 고맙습니다.라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영육간의 연단을 받는 시기로 생각하고 잘 다나오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이만 줄입니다.



인터뷰

박동환 형제를 만났습니다

5주배례를 드린 후 부지런히 교육관 계단을 오르는 새 사람이 있습니다. 낯선 얼굴에 조금은 서먹해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신입부 리더와 그가 맞고 있는 신입회원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당황했습니다. 소위 신앙심 좋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종류의 대답을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은 짧았으며 거의 만만는 사람과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속에 담긴 진실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안개에 쌓인 물체처럼 흐릿하게나마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신입회원을 통해 형식이 되어가는 제 삶을 뒤돌아 볼 수 있었으며 보여지는 신앙에 제가 얼마나 익숙해져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어 신입회원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짧은 답변으로 인해 비슷한 질문은 쉼어서 긴 대답으로 처리했음을 밝힙니다.
69동기 박동환 형제는 김형조 리더가 주중에 전화도 해주고 일제도 보내주는 등 열심히 잘해주시며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Q. 책임이 막중하시네요. 가족간의 대화는 어느 정도이고 내용은요?

A. 대화야 뭐 매일 하고 있고 ... 일상적인 말만 해요. 집에 교회 들어오게 제 생활이 있으니까.

Q. 일찍 나가는 후 직장생활에서 어려움 적 없었나요?

A. 그렇게 어려운 것 없고 똑같죠. 월, 일요일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Q. 원래 술 안드시요?

A. 예전엔 먹었는데 요즘 몸이 안좋다 보니까 안먹어요. 안먹는 지 한 1년 됐나? 거의 막게 내(藥)이니가 예전에는 하루에 한번씩 먹었어요.

Q. 교회 나오기 전과 후의 생활상이나 마음의 변화가 있단?

A. 예전에는 주일에 친구들 많이 만났는데 지금은 교회에 나오고 ... 친구들에게는 아직은 예수 믿으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Q. 혹시 집에서 계시드려나요?

A. 예. 옛날 조상님부터 하고 있었으니까 ...

Q. 시간 날 때 뭐 하세요?

A. 주말 같은데 등산 자주 다니고 친구들과 모임 하고

... 관악산, 북한산을 주로 가요. 교회에 나오면서는 새벽에 관악산 등산하고 교회에 나오요.

Q. 이런 질문은 좀 애매한데요. 진정으로 예수님 영접하셨나요?

A. 그렇게 많이 다나보지 않아서 아직은 모르겠고 계속 믿어봐야요.

Q. 성경은 얼마나 읽으세요?

A. 주일에 여기저기 보고 평소에는 시간이 없어서 ...

Q. 교회 적응하는 데 힘들지 않았어요?

A. 맨 처음에는 서먹서먹 하다가 계속 나오니까 재미도 있고, 사람들도 알게 되고.

Q. 성경공부 하면서 마음에 와 닿았거나 생각나는 것 있었어요?

A. 마음에 와 닿은 것은 아직 없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에 관한 것이 생각나요.

Q. 청년부에 하고 싶은 얘기 있었어요?

A.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박동환 형제는 교회에 나온 지 8주가 되었고 신입부에서 구원이 무엇인가부터해서 기도응답, 송사, 사회, 인도의 확신에 대한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박동환 형제를 알고 있는 김형조 리더의 기도 제목을 끝으로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하루속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 요를 나라가 아름다운 형제가 하는 일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프리랜서 - 회계 업무)

◎ 앞으로 주일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찬양중에 거하시며 기쁨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경 숙(목사, 1교구)

찬양받으시길 기뻐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오늘에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정직한 자가 마땅히 드러야 할 찬송을 수금으로 비파로 찬양한 것 같이 내게도 그 은혜를 주시어 악기로 하루 5-6시간을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찬양 때마다 기쁨과 평안, 감사와 믿음이 넘쳤습니다. 근심 대신 찬양의 웃음 입혀셨고 기쁨의 근원되신 예수님이 늘 내 안에 계심을 체험했습니다. 연약한 몸이 부족함이 없는 건강까지 주셨습니다.

구원의 기쁨 가운데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 가정에 흑암의 권세가 찾아 들어와 평생을 병을 모르고 그렇게도 건강하던 남편이 지난 1월 7일 병원에서 위암이라는 최종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것도 알이든 위장을 침범해 퍼진 상태에서 뒤늦게 발견된 것입니다. 평소 신앙으로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으나 막상 결과를 듣는 순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의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 남편은 밝은 웃음으로 오히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이런 일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쁘게 가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고치신다"며 나를 위

로하면서 확고한 믿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수술을 해야 할지 아니면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동안 남편의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을 드렸던 권사님을 통해 받았던 기도의하라고 하시고 믿음의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원에서 집에서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남편은 이 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다급하게 치유와 소원을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면서 수술을 완전히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만 매달리는 쪽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섯 명의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기도원에 들어간 지 이틀이 지나 1월 9일 신유의 은사가 있을지 권사님과 기도원의 목사님을 통한 성경의 특별하신 치유의 역사의 모든 암세포가 완전히 소멸되는 특별한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환난 중에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내게 찬양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기뻐하라는 성경님의 인도와 찬송가 359장 "예수가 함께 하시니 시

협이 오나 집없네 기쁨의 근원되시는 예수를 위해 삼시다." 이 찬송이 큰 시련을 딛고 기쁨의 근원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니까 두려워할래야 두려워할 수 없이 승리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또 교회에서 매 예배시간을 통해 힘을 주셨고, 병마와 싸우는 방법을 배웠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보여 주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성경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강단의 꽃피어마저도 소리를 예고 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큰 시련을 기도 와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듣는 이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경숙 집사(교우들과 함께 설교장에서)



신앙성립

안식교

(The Seventh-day Adventists)

정 현 민

(목사, 16교구 · 장년3부 · 법조인전도회 · 도서관학회 지도)

질문 /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면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안식교가 시작될 당시는 다른 이단들이 발생하던 때와 같이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정황들이 작용하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천년왕국 사상이 유행하여 자신들의 미래를 갈망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천년왕국 신앙에 대한 열망은 교회내의 성숙한 신도들로 하여금 기성 종교의 안락한 태도에 불만을 가지게 했고, 동시에 새로운 신앙운동들 동경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뉴욕주의 중서부지역에서 물본교, 강신술, 제림운동 등 여러 신종종교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윌리엄 밀러의 안식교도 바로 이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1. 성경의 권위

안식교 교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하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교 권위의 출처를 '안식교 교리문답집'에서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리문답집에 나타난 그들의 주장과 모순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식교도들은 교리문답서 2장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찍 보게 되면 그 책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면밀히 연구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는 행위를 죄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임재되신 흠 없고 죄 없는 어린 양(벧전:1:19)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요일 3:5)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 안식일과 구원

안식일에 관한 문제는 안식교인들에게 가장 첨예한 이슈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옛날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레 되는 날 쉬었으므로 제 칠일 안식일은 후에 변경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 계명으로도 항상 남아 있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로마교회의 교황권으로 인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예배보는 날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원래 이방인들이 태양을 섬기는 우상의 날이 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종죄를 짓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날을 예배일로 정해 우상을 섬기는 죄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안식일은 토요일로 영원히 지킬 창조 기쁨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안식일을 주일로 변경한 죄를 교황이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새 창고를 이룩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주일

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사도들은 주일을 예배일로 정해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문제에 대해서 개혁신학자인 게랄더스 보스는 "안식일은 인간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옛 언약은 일어난 메시야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칠일에 있었지만, 새 언약 아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3. 조사 심판의 원리

안식교가 주장하는 또 하나의 교리적인 특성은 조사 심판교리입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바 예수 그리스도의 1884년 제림일이 실패로 끝나자 다니엘 8장 14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성소를 정결케 하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조사 심판).

그러나 다니엘 8장에 나타나지는 예언은 그리스도의 제림이나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런 오류는 구약의 제사제도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것은 단회적인 것이었습니다(히 7:27).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조사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로 8:34).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과 사건을 곡해해서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만들어낸 것은 그들의 제림예언을 정량화 시키기 위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안식교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성 소수, 토요일 안식일 문제, 조사심판의 원리에서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체들 소식 / 부사 탐방

지체들 소식

▶ **영양부 / 지난 주일(3월 29일)** 성경이야기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림으로, 이야기로 발표하였다. 7명의 아바, 엄마가 정성껏 준비하여 감사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나누었다. 아가에게 한글보다, 영아보다 먼저 조기 교육과 께들의 으뜸인 성경 말씀을 기도하며 가르침이 마땅하지 않을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 (송혜경 통신원)

▶ **종동부 / 지난 주일** 학부형들을 초청하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부장 김단용 장로님과 지도 박노철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두 분의 부모님들과 각 처과장님들, 모든 교사님들이 금식하고 준비하여 122명의 학부형들이 참석하여 뜨거운 기도를 올리며 늘어난 시간이었습니다. 학부형님들은 종종 1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사님들을 소개받으시고, 부장 장로님과 지도 교역자님의 인사 말씀과 부탁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순서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특별히 담임 교사님들과의 개별 상담과 기도회에 일하는 학부형들께서는 매우 진지한 모습이었으며 그분들의 신앙 교육에 대한 열의와 뜨거운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부형님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송선아 통신원)

▶ **종동부 / '짜자자 ~ 장 ~'** 이긴 우리 학교2부에서 그동안 버리고 버렸던 한 교도들의 문을 여는 시간이었습니다. 몇 주일 전부터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명단을 작성하고 한 친구, 한 친구의 이름을 불러가며 모든 교사로 기도해 왔다. 결석하는 친구들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을 잘 몰라서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 종동2부에서는 가장 많은 친구들(33명)이 출석하는 인북중학교의 문을 힘차게 열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굳게 닫힌 친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예수님'을 잘

알 수 있게 소개하는 것이다. 주께서 힘 주시리라 믿으며, 우리 종동2부 학교 전도 책임 선생님과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성애 통신원)

▶ **고동부 / 고동부에 소속된 모든 교사들의 각 가정** 심방을 실시하고 있다(3월 19일 ~ 4월 30일). 이번 교사 가정방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나누며 가정에서의 기도제목과 나누고 전권일꾼 양성을 위한 사명과 헌신을 격려하는 회를 삼고 있다. 또한 앞으로 부부가 함께 고동부 교사로 봉사할 것을 지극히 부터 기도해 준바는 권유를 하고 있다. 한편 지난 29일 집회시간에 돌로스발대식을 했다. 장기 결석생을 위한 기도와 학원 전도를 목표로 우선 고동부 학생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 중 16개 학교를 대상으로 돌로스를 조직하고 활동하기로 했다.

▶ **청년2부 / 4월이 시작되면서** 이번 1월 30대 찾기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면회회 조서에 따르면, 교회에 등록된 30대 성도는 약 2천명 가량 되며, 주일 예배에만 드리고 부서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인원은 천명 정도에 달한다고 한다. 따라서 청년2부에서는 이러한 청년2부에 등록되지 않은 30대들과 등록회원 중 장기 결석자들을 찾아나서기로 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신앙 생활과 성경공부, 교제, 헌신을 통한 신앙의 즐거움을 나누기를 원하는 30대들은 청년2부(집회 시간: 매주일 낮 12시 20분, 장소: 교육관 514호)로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명자 통신원)

▶ **1교구 / 매주일 교구모임** 때면 손에 들려지는 교구 소식지, 환자들을 위한 기도란에 매주일 같은 이름이 실려지는 것을 보게 된다. 회로예배의 코치 속에 이제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사고로, 질환으로 자리에 눕고, 불편을 겪을은 우리 자신의 아약함과 한계를 크신

주님 앞에서 느끼게 한다. 우리 연합찬을 전히 담당하고, 병을 잃어지신 예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솜데 알고 병든 자에게 굳게 주시는 예수여, 오직 주의 권능의 손에 의지하여, 특별히 암과 부병 중인 권속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곡하던 마리아의 기도처럼 교구 식구들을 두 손을 모아 기도드린다. (임동태 통신원)

▶ **3교구 / 밝고 화창한 3월 31일** 화요일 3교구 이승수 목사님과 송창자 전도사님을 비롯한 148명 교구 지체는 중헌기도원에서 뜨거운 기도와 찬송으로 은혜를 나누었다. 영성훈련을 실시했다. 11시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말씀, 찬송, 기도와 봉사로 3시 30분 한시간까지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준 은혜 속의 하루였다. 요한일서 4장 '진리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유복조 오신 예수님을 신령한 하나님인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치우침 없는 신앙생활을 하자는 말씀을 받고 즐거운 점심식 후 1사부터 영성훈련에 관한 목사님의 강제가 이어졌다.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아니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영을 개발한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그들이 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더 깊이 맺어지기를 위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영성 있는 삶을 살리고 믿음의 각오를 다지며 기도했다. 기도원을 위한 봉사시간에는 감사 성가와 청소년 노동운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활력 얻는 개나리와 진달래, 마른가지에 막 씌인 봄 새순을 보며, 모든 생명은 예수나 때가 되면 다시 꽃을 피워 이땅에 아름다운 동산들을 만드는 것을 보다 즐거워했다.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도 오병이의 기적의 떡을 먹은 백성도 또한 우리도 다 죽으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

라는 소망에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는 똑같은 환경과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는 그 기쁨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며 3대의 바스에 나누어 타고 기도원을 내려왔다. (박명애 통신원)

▶ **충현복지관 / 지역 주민을 대** 상으로 4월 7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20분 동안 복지관 지하 1층에서 무료 사회교육강좌를 실시한다. 김준기 원장(마음과 마음병원)을 강사로 '스트레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이강좌에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4월 12일 예배 전 전향곡 및 연주자

◆ **2부예배**
임마누엘 트럼펫 4중주
(최도열 리더 / 장기명, 최아노 / 김남욱)
- 부림에 머물리(한 150절)
- 내리 에기 있나오
- 거룩한 성 - 하나님 얼굴 볼 수 있네

◆ **3부예배**
소프티노 신동희
할렐루야찬양단 솔로리스트
(오르간 / 조희영)
(찬양곡목)
- 거룩한 성 - 임마누엘 아로강
- 다시 사신 구주(한 151절)

◆ **4부예배**
클라리넷 오정호
아벤트오케스트라 악장
(피아노 / 김승준)
(찬양곡목)
- 나의 영원하신 기쁨(한 492장)
- 내 주여 예수를 더욱 사랑(한 511장)
-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한 40장)

◆ **5부예배**
대학 - 청년1부원장대
(지휘 / 최현수, 오르간 / 민희정)
(찬양곡목)
- 사랑의 하와 죽음 왔노다
- 내 주를 살아 계시고(한 16장)
- 할렐루야



탐방 - 종동부

예배 바로 드리기에 중점 교육

비른 신앙 인격 갖춘 일꾼으로 자라도록 부모님의 협력 기대

초종통 빛나는 눈으로 열심히 설교하시는 장로님들을 바라보고 있는 학생들, 교회에서 좀더 많이 봉사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이 학생들은 청소년기에 들어서고 있는 종동1부(부장 김단용 장로, 지도 박노철 장로)의 학생들이다.

청소년기의 출발과 함께 신앙의 기초를 쌓아가는 이 학생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계획들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듣기 위해 종동1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올해 성경을 모두 읽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실천하고 있다. 종동1부 주부에 중헌성경공전강좌와 같은 유형의 문제들을 신이 학생들이 성경을 읽으며 답을 표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해 대표 학생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으면 한다.

종동1부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 4:2)의 말씀을 주체 성

구로 정하고 '예배 바로 드리기'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예배가 무엇이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며 예배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커서도 신령하고 건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배 시간일지라도 잘못된 점들이 빈번히 바로바로 잡고 넘어간다.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어야 하는 구원의 확신을 학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곳에서는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 각 반 선생님이 결석한 학생들의 가족의 결석 사유를 적어 장로님에게 전달하면 그



결석한 학생들에게 모두 전화로 연락을 한다. 이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만, 교사들의 관심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다시 나오는 학생들을 볼 때 무었보다 기쁘다. 종동1부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 도래들거리 맞추며며 생활할 수 있는 소그룹이 있다. 주보 집기, 예배 전후의 예배식 정리, 한글위원 등으로 봉사하는 면회회, 종동1부 소식지인 '실로아' 지를 맡는 기자단, 선교부가 있다. 이들은 주일 아침 9시에 모여 기도회를 갖고 예배 후 각가 활동한다. 이들의 순조로운 활동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

는 은혜는 크리라 믿는다. 초종통과 때와는 다른 생각과 환경을 접하는 종동1부 학생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특강과 함께 학부님들과 함께 하는 초헌 기도회도 진행하고 있다. 학부모 초청 기도회는 부모님들의 신앙이 바로 서야 자녀들의 신앙도 바로 설 수 있다는 취지에 마련된 것이다. 아직은 여러 면에서 미성숙한 그러나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학생들이 바른 신앙 인격을 갖춘 학생들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종동1부 교사들은 앞으로 계속 관심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이에 부모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촉구적인 협력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송 / 박주영 기자, 사진 / 이윤구 기자)



교회소식

알림

1. 부활절 안내 / 12일(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기도와 정성으로 부활절 헌금을 드리지기 바랍니다.
2. 고난주간 및 전교인 금식일 / 6일(월)부터 11일(토)까지 고난주간이며, 특히 10일(금)은 전교인 금식기도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3. 부활절 찬양의 밤 안내 / 12일(다음 주일) 찬양예배시 있습니다. · 찬양곡: 가브리엘찬양대 · 찬양곡: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외
4. 실업인전도회 · 군전도회 · 교정전도회 주일기도회 / 매주일 15:30부터 16:00까지 사랑부실에서 있으며, 관심있는 성도들의 참여 바랍니다.
5. 부지역장, 구역장 훈련 / 매주일 수요일 1부예배 후 각 구역별 장소에서 있습니다.
6. 남성도구역 구역장 훈련 / 매주일 수요일 1부예배 후 배다니홀에서 있습니다.
7. 차량관리 자원봉사자 모집 / 교회내 차량 정서 유지를 위해 봉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문의: 차량관리부실(본당 지하1층)

모임

1. 정기당회 / 8일(수) 1부예배 후, 당회실
2. 장로 화요새벽기도회 / 7일(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3. 건축위원회 월례회 / 7일(화) 18:30, 사무국
4. 감사위원회 월례회 / 오늘 15:30, 선교관 404호
5. 남녀전도부 각 구역 회장, 부회장 월례회 / 오늘 15:00, 칼빈홀
6. 교정전도회 월례회 / 오늘 15:00, 갈릴리움
7. 실업인전도회 목요기도회 / 9일(목) 새벽기도 후, 실업인전도회실
8. 경찰전도회 월례회 / 12일(다음 주일) 15:00, 칼빈홀
9. 안수집사회 월례회 / 오늘 교구모임 후, 교육관 214호
10. 안수집사회 월요새벽기도 성경공부 / 6일(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11. 권사회 제1차 월례회 / 8일(수) 1부예배 후, 사랑부실

남녀전도회

1. 바 줄라 / 12일(다음 주일) 교구모임 후, 교육관 201호
2. 베드로 9 / 9일(목) 19:30, 박상용 집사택(장군갈배, 212-6728)
3. 베드로13 / 오늘 12:00, 칼빈홀
4. 에스더 6 / 7일(화) 교구 영성훈련 후, 기도원
5. 마리아 4 / 9일(목) 10:30, 장재형 집사택(532-9547)
6. 마리아15 / 12일(다음 주일) 12:15, 유아부실

별세

1. 서분비 성도(구원섭 집사, 구명섭 성도 모친, 이숙희 집사 시모, 제1교구 염삼1구역) / 1일 별세, 3일 장례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668	박와숙	1	청년1부		678	방영애	15	청년2부		688	유지현	19	대학부	
669	오정균	1	청년1부		679	한은자	16	청년2부	한원자(16)	689	최윤식	19	대학부	조인명(14)
670	박은우	1	청년1부	노천옥(1)	680	원경희	16	소망부	한원자(16)	690	김민지	19	대학부	
671	라명순	2	소망부		681	김소현	19	대학부		691	최준정	19	대학부	
672	전창식	2	베드로		682	박재현	11	요한		692	김혜선	19	대학부	강임구(10)
673	고창용	4	청년2부		683	송정일	19	청년1부		693	이영미	19	청년1부	
674	복미란	4	청년2부		684	신명철	19	대학부		694	성경립	19	청년2부	
675	백성현	6	청년2부		685	김성록	19	대학부		695	김경희	19	청년2부	이태형(10)
676	최춘호	10	청년2부	이평희(7)	686	최성경	19	대학부		696	전병식	15	청년2부	
677	신영분	12	루디아	정달영(12)	687	박준규	19	대학부		697	김경혜	19	대학부	

※출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표로 오시기 바랍니다.

금주의기도제목

- ① 김창진 원로목사와 김성관 위임목사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 ② 그리스도의 고난분배 자기 부정의 신앙 회복하게 하시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 ③ 근절결약의 내팽개침을 실천하여,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아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고, 장학생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교회 일꾼이 되게 하소서.
- ④ 주간성경공부, 교구별 영성훈련, 남성도구역모임, 구역장 훈련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교제 가운데 풍성케 하시고 충현의 권속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 ⑤ 다음 주일예배 전 찬양을 담당하는 일마 누엘 트럼펫 4중주(지도 및 리드: 장기범, 2부), 소프라노 신동의(할렐루야찬양대 솔로 이스트, 3부), 클라리넷 오광호(아엘로엑스트라 악장, 4부), 대학 · 청년1부찬양대(5부)들이 열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 ⑥ 모든 성도들과 기관과 교회에 전도와 선교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열심히 참여케 하소서.
- ⑦ 새벽기도회와 금요집회와 주일 5부예배가 계속해서 힘있게 열리시게 하소서.
- ⑧ 민족과 나라와 교회를 위한 회개와 기도의 운동이 활발케 하소서.

원로목사

김창진

위임목사

김성관

부목사

이홍성 김희수 이종대 박경한 김동석
한근수 김필수 전형훈 김재철 이순수
장갑진 정현민 조문환 조철수 김동하
차병준 김병태 김인식 권성현 서광진
이승학

합동목사

유영택 박용환 노봉민

선교사

이준근 안석필 김영대

감사

이준경 박노철

원로전도사

이두란

예전도사

최순복 정현일 현정남 정복인 장영지
임태주 김정자 배옥인 최지혜 손미희
유향자 신동자 윤인숙 오정숙 오인숙
김옥윤 한영준 박종화 박희자 김영숙
김복순 최영란

교정전도사

박상희

교도전도사

박인기 염현일 한승일 이종관 김영기
송원식 김창중 조재민 최진우 허용구
이후관

선교전도사

정성기 정희호 박태양

평신도전도사

유병세 김형선 이기성 김철영 고은빈

1998. 4. 5. 제98 - 14호

사무엘하 19장 ~ 열왕기상 15장

충현 성경통신 강좌

(제) 교구 지역 구역 () 이름

1. 다음 성경구절 몇 구절에 있습니까? (사무엘하 19 ~ 24장)

- 1) 유다 사람의 딸이 이스라엘 사람의 딸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
- 2) 스와는 시기심이 되고 사독과 아비야달은 제사장인 되고 ()
- 3) 저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하므로 다윗의 형 삼하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
- 4)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위요 ()
- 5)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돌레헬 성문 귀울 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
- 6)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

2. ()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열왕기상 1 ~ 7장)

- 1)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뜰을 가져다 ()에게 기름을 부으니
- 2) 너는 본받히 내가 나가서 () 시대를 건너는 날에는 정병 죽임을 당하리라
- 3) 이는 하나님의 ()가 저의 속에 있어 관권함을 보이더라
- 4) 저가 () 삼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일천 다섯이며
- 5)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의 ()으로 놓게 하매

6) 제 사녀 ()에 여호와와 전 기초를 쌓았고

7) 솔로몬이 또 여호와와 전의 모든 ()를 만들었으니

3. () 안에 맞는 것에는 O표, 틀린 것에는 X표 하시오. (열왕기상 8 ~ 15장)

- 1) 솔로몬이 화목제의 회생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이만 팔천두요 ()
- 2) 저희가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사백 이십 달란트를 얻고 ()
- 3) 왕이 예루살렘에서 온을 돌 같이 순환케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
- 4)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
- 5) 르호보암왕이 예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
- 6)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고 ()
- 7) 여로보암이 왕이 된지 이십이년이라 저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
- 8) 유다 왕 아사 제 삼년에 바사사가 나담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의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베를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순권

부활절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리

찬양예배시 부활의 기쁨으로 특별찬양

올 해도 어김없이 부활절을 맞았다. 승리의 날이요 기쁜 날이다. 최고와 감동과 감사가 마음을 가득 채우는 날이다. 모든 성도들이 간직한 생명의 비밀이 확증된 고귀한 날이다.

하지만 깨달음과 돌이킴이 없는 명분의 부활절로 지나가지 않을 까 하는 염려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다. 자주 그대 왔기 때문이다. 해마다 부활절기가 가까워오면 부활절에 대한 수식어들과 의례적인 행사들이 홍수를 이룬다. 그러나 정과 부활로 이어지는 고난에 대한 깊은 묵상과 회개와 변화는 뒷전에 미룬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의 이전과 이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마치 일상을 떠나 조차된 어떤 환경에서 잠시 머물다가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듯 우리는 부활절을 그렇게 맞고 그렇게 보내기 십상이다.

그러나 고난과 부활에 대한 깊은 묵상과 절단하는 신앙이 없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는 부활절을 맞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과거에 치르어온 사건에 대한 단조로운 기념식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살아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한다. 이를 위해 온 성도들은 찬양과 감사의 기도도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올 부활절 특별 찬양은 가브리엘찬양(대지희 조신우 집사, 반주 백금우 집사)에서 준비했다. 주 때려 죽은 십자가, 저 십자가를 생각하며, 누굴 놓아 주기 원하느냐, 어떤 양을 보라 등 총 10곡을 연주하게 되는 이번 특별찬양에서 특히 아홉번째 곡인 '베드로의 질문'은 후편 부분에서 온 성도들과 함께 부를 수 있도록 하였다.

충현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

장제인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행동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시간적인 여력이 없는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실이나 장제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 장제인들이 더욱 기뻐하는 것은 진밀한 관계와 인간적인 정(情)입니다. 꼭 충현복지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많은 곳에서 장제인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장제인과 함께 하면서 장제인에 대한 이해와 장제인을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IMF 시대를 맞이하여 충현복지관에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3년 정도의 직업훈련을 받고 졸업한 훈련생들은 이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취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과 똑같이 일을 할 수는 없지만 더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복지관의 직업훈련 교사 현장 지도를 합니다. 주위에 정신 지체 장제인을 취업시키실 수 있거나 단순 작업을 하청 줄 수 있는 사업체가 있으면 소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충현복지관 임직원 및 훈련생 일동

봄맞이 교회주변 대청소

4월22일 수요일부예배후 2시부터

봉사위원회의 미화부에서는 매년 봄과 가을 두 번에 걸쳐 실시되는 교회 주변 대청소를 금번 4월 22일(수) 1부예배 후 2시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총현의 성도들은 교회 주변 도로와 골목들을 청소하면서 작은 일에 봉사하는 본을 보이도록 이웃 주민들과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하겠다.

4월 20일은 장애인들의 날

에바다부 · 시애틀 장애인주일 특별 행사

4월 20일 장애인들의 날을 앞두고 19일 주일을 '장애인주일'로 지킨다.

편견이 없으신 하나님과 지극히 작은 자를 높이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장애인들과 한 공동체 안에서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특권에 속한다. 총현의 성도들은 금번 장애인주일을 맞이하여 마음을 모아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한편, 장애인주일을 맞이하여 에바다부와 시애틀부에서는 각각 특별 찬양 및 전도행사를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중이다. 또한 충현복지관에서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장애인들의 날 행사(4월 20일, 올림피아공원 제3체육관에서 열리)는 기념식 및 노래자랑, 축하공연, 기타 공동체 행사(들) 및 체육대회 등에 동참키로 하고 준비하고 있다.

5부 '벤엘찬양대' 출범

그동안 대학부와 청년1부 지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봉사해온 5부찬양대가 4월 19일부터 '벤엘찬양대'로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장부는 대학부 부장을 맡고 있는 서동석 장로가, 부대장에는 안석현 집사와 원진자 권사, 지휘에는 찬양감독 강임주 집사, 그리고 반주에는 그동안 5부찬양대 반주를 계속 맡아오던 민희정 자매가 각각 임명되었다. 벤엘찬양대가 아름답게 정착하여 온전한 예배와 부흥을 위해 성길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절실하다.

벤엘찬양대원 추가모집 대상은 대학부 이상 찬양대원이며, 희망자는 4월말까지 찬양위원회(구내전과 205번) 혹은 찬양감독에게 신청하면 된다.

'98 교회학교운영안' 제정

교육연구소에서는 예년보다는 훨씬 빠른 금번 4월 중으로 '98년도 교회학교운영안'을 발간할 계획이다. 교회학교 각 부서의 교육계획을 체계화시키고 교육과정에 대한 안목과 이해를 넓히고자 96년도부터 실시되어온 이 작업이 지속적으로 정착 발전되어갈 수 있도록 교회학교 각 부서의 협력과 교회학교 교육에 대한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요청된다.

경철전도회
춘계 영성훈련

경철전도회는 춘계 영성훈련을 4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우성산수련원에서 가지기로 했다. 말씀을 통한 새로운 각성과 기도회, 노방전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게 될 금번 영성훈련의 강사는 조칠수 목사이다.

교회 인사

현재 7교구를 지도하고 있는 김병택 목사는 3월 15일부터 성경연구원 지도를 겸하게 되었다. 또한 7교구 교구장 김여은 장로는 건강 회복 기간의 필요에 따라 김복관 장로가 임시로 대표하기로 했다.

벤엘찬양대원 모집

- 대상 : 만 19-39세
- 모집기간 : 4월 30일(목)까지
- 문의 : 찬양위원회(교관 205)

4월에 부활하신 예수

부활의 주님 오시는 청자빛 하늘
따사로온 봄새가 대지를 감싸고
온몸 발하여 붉은 보혈로 꽃피운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립시다.

놀라운 주님은 물오른 새싹 만들고
빛깔 그리는 꽃잎 꽃잎마다
꽃향기로 노래하는 환영의 호신나
개화의 꽃봉우리 주님 맞이 한창입니다.

갈보리 갈보리 영광을 꽃피우며
주가 흘리신 보혈 용서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들 마음 속 깊이깊이
예수의 향기로 가득가득이 피어납시다.

생생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
사랑은 마지않 한 발자국에도
고귀한 희생의 붉은 보혈 피아는 꽃
삼십자 사랑은 어디로 아릅답습니다.

삼십삼년 활짝 핀 꽃 쫓아낸 그날
매달린 한 꽃잎 떨리는 절규의 비명
삼십자 위 걸린 저 모습 고통의 외마디
갈보리만 매어낸 여운으로 들려옵니다.

"나" 저 갈보리산을 향해 바라납시다.
저 골고다 언덕길을 바라납시다.
주님 가진 그 길을 바라납시다.
주님 잃은 십자가를 바라납시다.

생생해서 가장 아름다운 꽃 예수
죽음을 아끼고 4월에 부활하신 예수
나 영원이 부활을 노래합니다.
나 영원이 예수를 사랑합니다.

김 윤 섭

(집사, 중동2부 교사)

금주의 교구 영성훈련

4월 14일(화) 제7교구
4월 16일(목) 제8교구

블레셋에 대한 경고

(이사야 14:28-32)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죽었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를 괴롭히던 자가 죽으면 그보다 더 무서운 자가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지은 바 모든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김 창 인 목사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만큼 악독하고 이웃 나라에게 악한 짓을 하여 인심을 잃은 곳인 족속입니다. 블레셋은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는 맬을 추지 못했고 또 아수르 왕 디글랴트 블레셋 왕 때에 실패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에게 좋은 때가 왔습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과 아수르의 디글랴트 블레셋 왕도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는 참으로 좋은 때가 된 것입니다. “아, 유다 왕도 죽었고 아수르 왕도 죽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천지가 되었다.” 착각입니다. 블레셋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뻐 날뛰었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은 이사를 통하여 블레셋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1. 블레셋에 대한 경고가 어떠한가

(1) 블레셋의 대적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아하스 왕의 죽던 해에 경교라 블레셋은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뿔이 되리라”(28, 29장)

유다 왕 오시아는 뱀과 같이(29절) 그들을 몰아 뜰고 죽였으며 그들을 매우 비천하게 만들었습니 다(대하 26:6). 그래서 오시아가 죽었을 때에 가드 사람들은 기뻐하였습니 다. 오시아가 죽자 그들은 아하스에게 복수하여 유다의 여러 성읍을 빼앗았습니 다(대하 28:18).

그러나 이사야는 오시아의 ‘뿌리에서 독사가’, 즉 오시아보다 더 엄청난 원수, 곧 히스기야가 ‘나겠고’ 그 열매는 그들에게 ‘나는 불뿔’이 될 것이니 안심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아리석은 블레셋 사람이여 아하스 왕이 죽었다 그 천지가 너희 것이 된 줄 알고 기뻐하지 마라. 너희를 때리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이제부터는 맬을 맞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하스 왕보다 더 무서운 왕이 나와서 동맹으로 맺어진 자를 뱀이 물고 독사가 물고 중증에 나는 불뿔이 물든다 점점 더 강하게 물어 뜰을 것이니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블레셋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

니다.

(2) 성이 무너지고 원수가 입성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성문이어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어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게 되었다”(31절)

지금 아하스 왕이 죽었다고 블레셋이 기뻐하지만 다시 독사와 불뿔이 그들을 몰아 뜰는 날에 그들을 보호하는 성문이 불에 타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성문에 불을 놓기 위하여 북방에서 군대가 오는데 그 군대가 밤을 짓기 위하여 때는 연기가 북풍을 타고 그들의 성곽을 덮치겠다고 합니다.

(3) 블레셋의 권력자들이 굶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 내가 너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30절)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란 말은 왕족들을 굶어 죽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자들이 배가 고프고 굶어 죽는다면 평민들은 말할 것도 없이 다 굶어 죽을 것입니다.

(4) 피신한 블레셋 사람들은 실록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 너의 남은 자는 실록을 당하리라”(30절)

도망치려 겨우 살아난 사람들은 인수의 칼날에 실록을 당하여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그 시체가 땅에서 짐승들의 밥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2. 블레셋이 멸망하는 날에 선민 유다는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까

(1) 물결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빈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30절)

이 말씀은 블레셋 때문에 쇠약하고 가난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물결의 복을 주시어 부요한 생활을 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블레셋이 멸망하는 날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진리를 지켜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에게 평안히 누워서 배부르게 되는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습 3:12-13).

(2) 시온을 세워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히리라 할 것이니라”(32절)

그 날에 하나님은 시온을 세울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을 준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곳은 백성들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는 복된 곳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레셋 멸망의 경고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나를 괴롭히는 자가 죽었다고 해서 내가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를 괴롭히던 자가 죽으면 그보다 더 무서운 자가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자가 망했다고 하여 우리에게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꼭 배워야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자가 우리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시켜서 우리를 괴롭히던 마귀가 더 무서운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옮으나 하는 것입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죄가 있는 곳에 죽음이 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여 용서를 받아 성령이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면 악어는 살 못하는데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죽고 디글랴트 블레셋 왕이 죽었으니 이제는 원수들이 모두 죽었다고 더 좋아할 것만 같습니다. 원수보다 더 무서운 독사가 오고 그보다 더 무서운 불뿔이 올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은 바 모든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 넘어뜨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교회를 지키십니다. 성도의 가정을 지키십니다. 성도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주 안에서 진리에 순종하고 양심을 깨끗이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피에 젖어서 바로 살면 하나님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내시기 전에 태양을 내셨고 인간이 땅에 살기 전에 공기를 지으셨고 오곡백과를 열매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인간들이라도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어찌 버리시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셋째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므로 사탄에게 뺏히게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지만 인간의 눈이 보기에 훌륭한 예배당을 지어도 해도 하나님이 지키지 솟대를 옮기시면 믿지 않는 자에게 찰거칠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실 때에는 손뼉 치지 않으나 교회가 더러워져 하나님이 버리시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덧놓이지 못하고 다 무너지듯이 그러질 것입니다.

이 무서운 교회를 배워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에서 핍박을 받든지언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하여 조심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충원교회에서는 주님이 항상 계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돈이 없고 무식하다는 것이 걱정이나나 교회 안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이것이 문제입니다. 개인이 회개하고 교회가 죄를 정리에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므로 그 교회는 틀림없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역대하 36:11-23)



김성관 목사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을 내일로만 미루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화시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역대하 36장 후반부는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서도 경험될 수 있는 복잡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그의 택하신 백성, 그리고 이방인들이 각각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물론 구약 이스라엘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을 통째서만 빛을 비출 수 있는 회개와 같이 수동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으나, 우리들은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적극적인 지위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하나님과 그의 관계의 중요성'이라는 면에서 유사성을 가집니다.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한 기록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느브갓네살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대리통치인으로 시드기야를 세웠습니다. 당시 21세였던 시드기야는 이후 11년간 그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12절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와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는 자신에게 정치적인 호의를 베풀어 준 느브갓네살을 배신했습니다. 그는 느브갓네살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하나님의 존전에서 맹세하였지만 이내 곧 그 맹세를 스스로 깨뜨렸습니다.

13절입니다. “느브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끈에 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에 따르면 시드기야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모두를 배신한 셈입니다. 그는 겸비함을 버리고 악한 고관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드기야의 태도는 결국 유다 백성 전체에게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14절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시드기야는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고 모독했습니다. 자신의 완고함을 모든 백성들과 심지어 제사장들에게까지 전염시킴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영혼의 파멸이 저절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곧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신전이 되고 그들은 선택된 땅에서 거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에 의지하여서 끊임없이 그들의 악행을 지적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자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나니”(15절).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계속 반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온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시되, 특별히 시드기야 시대의 백성들에게는 예레미야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자기 백성과 그 백하신 땅에 대한 극진한 사랑으로 가득차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을 모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16절 상반절).

그 결과 그들은 무서운 형편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와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처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16절 하반절).

이러한 형편 속에서 예레미야는 울부짖습니다. “내 백성과 그의 소들의 죄악보다 중하도다”(예레미야애가 4:6). 이스라엘의 죄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여 완전한 파멸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심판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왕 느

브갓네살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매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을을 궁졸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17절). 이 심각한 징벌은 성소에서 섬기는 자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성전의 모든 재산과 부와 보물들은 느브갓네살의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와 그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18절).

그런데 이러한 참화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훼파하고”(19절).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땅 모두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칼에 피한 자는 포로로 잡혀갔고, 그 땅은 70년동안이나 황폐하게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바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70년이 지난 후 새로운 제국을 건설한 고레스왕을 감동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조서를 써서 선포케 하셨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향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였나니 너희 중에 누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나니”(23절).

이방인들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은 아니였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이해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불신자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실에 무감각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몰타고 있지 않습니다.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들의 중심에 진리를 담을 그릇이 없다면, 어떻게 치료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장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질까 두렵습니다. 우리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장차고 있습니다. 눈은 감았고 마음은 하나님의 의를 멀리하고 일신상의 행복을 좇아 분주합니다. 하나님은 주변적인 관심으로 멀리났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우리들 실존의 중심을 차지하고 계시지 못합니다. 이토록 위험한 영적 위기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깨어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고귀하신 사랑 앞에 우리들의 중심을 여십시오. 그의 음성을 듣고 바로 지금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이 다음에’라고 하시는 순간 때는 이미 늦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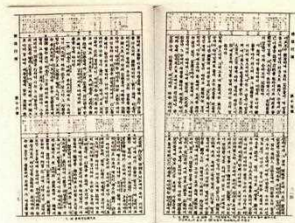
우리가 섬기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축복할 수 없는 공훈과 사랑을 가지셨습니다. 그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는 일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지속되는 우리의 불순종을 언제까지 참가만 하실 수는 없습니다.

때가 이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백성을 벌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을 내일로만 미루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화시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

선교의 성령계 7

선교의 책 사도행전



1) 성령과 선교

신앙의 교회와 전도는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시작됩니다. 성령님은 처음부터 교회를 전도하는 교회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님은 선교의 영으로서 사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은사들과 담대한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지시는 안다독 교회를 통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실 때, 또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실 때 잘 나타났습니다. 이 점에서, 성령님은 구약에서 언급한 바, 또한 예수께서 명하신 바 이방 선교에 대한 집행자로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2) 명령과 약속

초대 교회는 이방 선교를 할 때 예수님의 명령(행 1:8)을 따라 시작했고, 성령의 임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서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그 명령과 약속에 순종한 결과로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선교는 약속과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자원하도록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명령하십니다(행 13:2, 3). 특히 베드로는 오순절의 체험을 통해서 전도를 하나님께 대한 복종으로 생각했습니다(행 4:9). 바울 사도도 강력한 의무감에 사로잡혔으며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 같은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고전 9:16).

3) 평신도들의 전도

초대 교회의 설립과 선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이들은 평신도입니다. 핍박으로 흩어지는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이 전도를 통하여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더욱 강하게

게 체험했습니다(행 8:1-7; 11:19-21). 신약성경은 분명히 신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을 따르라는 명령에 대한 복종은 다만 자신의 구원을 얻기 위한 욕망으로 하거나 틀에 박힌 방식으로 하는 것이어서는 안되는 것인데, 바로 초대 교회 평신도들은 그들의 은사로서 이러한 모습을 간증합니다.

4) 선교전략

성령님은 전략을 통한 선교를 친히 이끌어가시며, 또한 격려하십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린 문을 찾았고, 신자들을 모으기에 가장 적합한 중심지를 택했습니다. 그는 신속히 자립, 자치, 자력 전파할 수 있는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엿보이는 중요한 선교전략은 첫째 그룹 중심의 전략(Group approach)입니다. 둘째는 동역원리(Team work)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전도하는 주체는 종종

'우리'로 표현됩니다. 물론, 바울과 바나바 간에는 마가 문제로 인한 불화가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동역의 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바울은 바나바를 청환합니다(고전 9:6). 셋째로, 사도행전의 선교는 '문화의 문제 해결'에 모범을 보여 줍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신약 최초의 총회로서 정치 총회가 아닌 선교 총회였습니다. 이 총회는 바울과 유대 의식과 문화를 분리하고 더 이상 유대인의 의식을 이방인에게 부과하지 않고 다만 이방인의 부도덕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기독교는 유대교의 종교적 문화와 정식으로 결별을 선언한 셈입니다(행 15:28-29). 넷째, 사도행전의 선교는 대도시 등 전략적 가치가 있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어느 교회인 안다독교회에서 시작하여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덴 등 지방의 중심 도시를 먼저 정복하였으며, 그 도시의 신종 교회가 주변 지역을 전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선교위원회 제공)

선교 정보 나누기 - 몽골

싸인 바이 노



몽골어로 "안녕하십니까?"를 "싸인 바이 노"라고 한다. 몽골어는 우리의 한글과 매우 흡사하다. 가령 예를 들면 "자나한테 얘기해"라는 말은 몽골어로 "자나한테 예리"라고 하면 된다. 언어와 생김새, 풍습도 비슷한 몽골은 한국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다.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는 몽골, 우리에게도 의미있는 선교지라 생각된다.

몽골의 면적은 1,565,000Km²로 한반도의 7배이다. 인구는 260만이며 이중에는 스탈린 강제 이주 결정에 의하여 이주된 한국인 약 30만 명이 포함된다. 언어는 몽골어를 사용하며 러시아어는 제2외국어로 웬만한 사람은 다 구사할 줄 안다. 수도는 울란바토르이고 몽골 전체는 21개의 아이막(道)으로 되어 있다. 몽골에서도 4계절을 느낄 수 있다. 봄(4, 5월)-여름(6, 7, 8월) 밤11시

에 해가 짐)-가을(9, 10월, 9월 중에 첫눈이 내림)-겨울(11, 12, 1, 2, 3월)로 나뉘어지고 겨울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며 5월까지 눈을 볼 수 있다.

몽골인은 평균수명이 60세이다. 고산(평균 1,400m)생활과 양고기의 기름과 피를 많이 먹고 채소를 먹지 않는 잘못된 식생활이 수명을 단축시킨다.

목축업이 주산업이며 광물, 석유가 풍부하다. 바다가 없고 정치, 경제의 고립, 소련의 붕괴와 러시아의 혼란으로 몽골 경제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300-600%의 물가 상승과 물자 부족, 인플레이션, 실업의 어려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100-200로 미국의 0.5-1%에 불과하다.

그러나 몽골에게도 중국에서 유럽까지 넓은 땅을 차지하며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시기가 있었다. 13세기 정복자 정지스칸의 동생은 통일된 몽골제국을 건설했으며 "해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거대한 제국을 이루게 하였다. 그러나 역사가 증거하듯이 영원한 제국은 없다. 1921년에 소련 다움으로 공산화되었고 그후로도 70년간의 공산 통치를 받았다. 70년 동안이나 계속된 공산 통치는 몽골을 영적 공백

상태로 만들었으나 1990년에 몽골이 서구 세계를 향해 개방되었을 때 이 나라에 4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음이 밝혀졌다. 그 후 3년이 못되어 몽골 전역에 1,000-1,500명의 젊은 사람들이 예배와 교제를 위해 모이게 되었으며 영국인 선교사 존 가본슨에 의해서 신약성경이 번역되었고, 구약성경은 60%정도 번역됐다고 한다. 최근에는 한국, 독일, 미국인에 의하여 성경을 재번역하는 일들이 추진되고 있다. 아직 몽골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게 주님 앞에 헌신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이는 몽골이 복음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는 될 수 있다.

서방 선교사들에게 몽골은 잘 이해되지 않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그들은 몽골을 창의적 접근 지역으로 분류해 놓고 주지하고 있으며 한국 선교사들의 활동을 주목하며 한국 선교사들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우리와 같은 알타이계의 언어와 색동저고리를 입고 재기를 차는 몽골인들을 보며 외면할 수 없는 서방 선교사들이 내린 결론처럼 몽골의 복음화는 우리의 몫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알림

선교를 위한 요일별 기도제목

월) 이집트 이준교 선교사

- 준비 중에 있는 현지인(이집트인) 목회자 세미나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화) 수리남 안식령 선교사

- 배진 사촌(인디언 마을)에 교회 세울 수 있도록
- 추장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수) 수단 김명대 선교사

- 수단 복음 전도회를 통해 수단이 복음화되도록

목) 케냐 고은빌 평신도선교사

- 차량이 속히 보급되도록

금) 단기선교

- 젊은 이들을 중심으로 준비 중인 단기 선교가 직접하게 은혜 가운데 준비되도록

토) 선교위원회

- 선교위원회가 추천교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